

“세계 한상 연결하는 첫 총회 이끈다”...세계한상대회 총회 초대 의장에 하경서 회장 임명

- 4.29 운영위서 만장일치 결정... ‘세계한상총회’ 첫 개최로 민간 주도 체제 강화
- 엘살바도르 카이사 그룹 이끄는 거상이자 나눔 실천하는 한상 기업인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5.11(월)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세계한상대회 총회 초대 의장으로 선임된 하경서 엘살바도르 카이사(CAISA) 그룹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.

* 세계한상대회 :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행사

○ 이번 임명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6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하경서 회장을 올해 대회의 총회 의장으로 선임한 데 따른 것이다.

○ 올해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주도 체제로 운영되며, 이에 따라 전 세계 한상들이 참여하는 ‘세계한상총회’도 새롭게 출범한다.

○ 하경서 회장은 초대 총회 의장으로서 올해 총회를 주재하고,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의 협력 방향과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.

* (참고) 총회 의장은 1년 임기로 당해 대회 프로그램인 총회를 주재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, 2년 임기의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(現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, ‘26.2.25 선출)은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대회 운영 및 한상 네트워크 전반을 지휘 및 관리

□ 총회는 오는 9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며, 제24차 세계한상대회 기간(9월 28일~30일) 중 진행될 예정이다.

○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 한상들을 대상으로 한상 네트워크의 미래 비전

과 주요 안건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.

- 신임 하경서 의장은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‘카이사 그룹’을 일군 대표적인 한상 기업인이다.
 - 특히 차세대 재외동포 장학사업과 동포사회 지원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.
 - 하경서 의장은 “민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세계한상대회의 첫 총회 의장을 맡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”며, “전 세계 한상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, 한상 경제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- 대회 규정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의장 임명은 세계한상대회가 민간 중심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”이라며 “전 세계 한상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.

붙임 : 임명장 수여사진 3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경아 (032-585-3220)
		담당자	사무관 황인용 (032-585-3293)



재외동포청(OKA)

재외동포청, 소통으로 여는 '제로민원' 시대!

동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가깝게, 더 빠르게 응답합니다.

동포온 라이브
매주 수요일 15시 라이브 방송



재외동포청장과의 대화
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

재외동포청장 SNS
재외동포청장이 직접 소통합니다



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제로민원 캠페인